

제주

·3
·16 세월호

4월의 비극을 영화로 만나다



4월을 맞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이 '4·3 사태'와 '세월호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위는 세월호 참사를 그려낸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아래는 '바람의 세월'.

'4월' 하면 많은 이들이 희생된 사건들이 떠오르곤 한다. 제주 4·3(1948)과 세월호 참사(2014)는 잊을 수 없는 4월의 비극들이다.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이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 사건' 등 4월의 비극을 다룬 작품 세 편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먼저 광주극장은 오는 6일 오후 3시 40분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을 상영한다. 영화 감상 후 GV(게스트 비짓) 행사도 열린다. 지난달 27일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개봉한 영화는 '세월호 참사' 외에도 1999년 '놀이동산 씨랜드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3개의 비극을 모티브로 완성한 작품이다.

주요 소재가 된 '세월호 참사'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색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희생됐으며, '놀이동산 씨랜드 참사'는 화재로 인솔교사 및 강사 4명과 잠자던 유치원생 19명이 숨진 비극적 사건이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일어난 방화로 192명이 희생 당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도 영화의 주 모티브다.

영화는 큰 고통을 경험한 유가족들이 모여 서로 아픔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경 감독이 GV에 참석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진행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정남 배우가 맡는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만든 세월호 10주기 영화 '바람의 세월'도 오는 11일 광주극장 등에서 상영한다. 김환태-문종택 감독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로, 5000여 개 영상과 3654일의 기록이 수록돼 있다.

광주극장·광주독립영화관

'세월호 참사'·'제주 4·3사건' 영화 상영

'세월' '바람의 세월' '돌들이 말할 때까지'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도움 되었으면"

특히 공동 연출을 맡은 문 감독은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 중이던 딸을 잃은 아버지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한편 올해 76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을 다룬 김경만 작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개봉일인 17일에 맞춰 독립영화관에서 상영(오후 3시)한다.

영화는 '지옥과 감옥의 생존자들'이라는 강렬한 문구를 내걸고 4·3을 겪었던 다섯 명의 생존자 여성을 초점화한다. 시대적 비극과 아픔을 위무하는 내용이 공감대를 불러 일으켜 지난해 제18회 제주영화제 제주 트럼상, 2022년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특별상(용감한 기러기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은 당시 스무 살 내외였던 젊은이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전주 형무소로 보내져 감옥생활까지 겪어야 했던 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후 70여 년이 지나 제주 4·3 도민연대에서 준비한 재심 재판을 통해 이들은 무죄가 밝혀진다)

다섯 명 생존자 할머니들(양능옥, 박순석, 박춘옥, 김묘생, 송순희)이 실제로 겪었던 4·3 트라우마를 들으며 대학살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중인 비극임을 환기한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

"저녁 저녁 사람 건너가면 발자국. 건너가는 발자국 소리도 나고. 연기로 보이는 게 없었어. 집 막 태워버리니까. 지금도 말 못하면 또 나 간첩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고."

선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희생자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 구술 채록·증인 형식으로 담겨있다. 시대적 아픔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장면과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교차 편집한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눈 쌓인 제주 오름, 돌틈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등 풍광은 역설적으로 역사의 이면에 드러워진 고통과 슬픔을 배가시킨다.

영화에 유독 '돌'이 많이 비취지는 것은 제주의 '3多' 중 하나가 돌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영화 제목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상징화하는 것으로, 70여 년 만에 무죄를 인정 받기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한 고통의 세월을 함의한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사회적 참사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나 유족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이 사건의 진상 규명 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완전한 진상 규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호남 대표 '진도씻김굿', 산 자와 죽은 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다

국립남도국악원, 13일 진악당

'진도씻김굿'은 망자의 넋을 씻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돕는 천도의례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굿이다. 1980년 11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산 자와 죽은 이를 동시에 위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씻김굿 전반부인 조왕굿, 안당, 초가망석, 제석굿 등은 산 사람의 복락축원을 위해 펼쳐지며 고풀이, 씻김, 낚풀이, 약풀이 등 후반부는 죽은 이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토요상설 일환으로 '진도씻김굿 보존회' 초청 공연을 펼친다. 공연 주제는 '진도씻김굿'이며 오는 13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

굿을 시작하기 전에 신들에게 잔을 올리며 연주하는 음악인 '남도삼현'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망자를 위해 신을 불러들이는 '초가망석', 이승에서 가장 친했던 영을 즐겁게 하는 '손님굿'도 차례로 펼쳐진다.

집안의 재복을 맞이해 부귀영화와 빌고 군공과 조상에 축원하는 '제석굿', 희고 긴 천에 열 개의 고를 푸는 한풀이 '고풀이'도 볼 수 있다. 끝으로 망자의 시신을 의미하는 '영돈'을 받아 놓고 썩물, 향물, 맑은물 순서로 씻겨내는 '영돈



진도씻김굿보존회가 사령 굿으로 망자의 넋을 진혼하는 의례를 펼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말이(씻김)와 극락왕생의 길배 위에 지전을 얹고 무가를 부르는 '길뉘음'으로 막을 내린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씻김굿'이라는 제의형식을 통해 죽음을 재현하는 것은, 망자를 천도시키고 산 자와 죽은

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며 "굿판이 '죽음 이후의 삶', '삶 이전의 죽음'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ACC에서 펼쳐진 빅도어콘서트 장면. (ACC재단 제공)

야외에서 즐기는 뮤직 'ACC 빅도어 콘서트'

5월4일 'G.J.Unity' 재즈곡으로 첫 무대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있다.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봄이 주는 화사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ACC 빅도어콘서트'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2024 ACC 빅도어콘서트'는 빅도어를 열고 야외에서 즐기는 뮤직 콘서트다.

올해 첫 무대는 5월 4일(오후 6시) 광주 출신 뮤지션 위주로 구성된 'G.J.Unity (Groove Jazz Unity)'의 무대로 문을 연다. 에너지 넘치는 재즈곡을 연주하는 'G.J.Unity'는 현대적으로 편곡된 50년대 재즈의 하드 밥 스타일의 곡들을 선보인다.

이어 이 시대 문제적인 재즈 연주자라 불리는 '김오키 새틴발라드'가 무대에 오르며, 실험적 사운드로 탄탄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재즈 대표주자 '윤석철트리오'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의 합동무대가 펼쳐진다.

조정호 문화예술사업팀장은 "'빅도어 콘서트'는 야외에서 현장감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재즈를 매개로 다채로운 곡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2만원이며, 오는 5월 3일까지 ACC재단 누리집에서 사전 예매 가능하다. 콘서트 당일 5월 4일(오전 10시부터) 현장 판매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에 자리한 유서 깊은 공간들

서구문화원, 사진집 '광주의 지금을 기록하다' 출간

용두동 지식묘, 벽진서원, 무각사, 상무시민공원, 오월루...

광주, 특히 서구에 자리하는 유서 깊은 공간들이다. 저마다 역사가 깃든 공간은 많은 이들에게 정보 차원을 넘어 중요한 역사적, 공간적 의미를 환기한다.

광주 지역에 산재한 문화 공간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이 발간됐다.

서구문화원이 펴낸 '광주의 지금을 기록하다'는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과 시장, 공원 등 20곳이 담겨 있다. 책에는 모두 206점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이번 사진집은 리일천 사진작가와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 빛고을 문화교실 사진반 수강생들이 지난 2년간 촬영한 사진을 묶은 것이다. 선사시대 오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용두동 지식묘부터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삼봉 김세근 장군을 기리는 학산사, 의병과 군수품을 조달한 회재 박광욱의 벽진서원 등을 만날 수 있다.

리일천 작가는 "이번 사진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의미있는 시간들이 응결된 장소들을 선정해 함께 가메

라에 담았다"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중요한 기록의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밝혔다.

사진집에는 과거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리 작가와 수강생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현장을 앵글에 포착하기도 했다. 호남의 최대 시장인 양동시장을 비롯해 농수산물의 집산지인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처나 걷기에 좋은 공간도 만날 수 있다. 무각사, 오월루,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공원 등을 사진으로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각 사진마다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들이 첨가돼 있다.

리 작가는 올해에도 빛고을문화교실 사진반 수강생들



만귀정

과 함께 서구의 또 다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이번 사진집은 서구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의미있는 공간을 수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빛고을문화교실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예술 체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